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에 나타난 모성 인식

서 세 림*

요약

본고에서는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에 나타난 모성(母性) 인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김유경은 장편소설 『청춘연가』와 『인간모독소』를 발표하며 2000년대 이후 활동하는 탈북자 출신 작가들 중 가장 주목받는 소설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탈북자의 폭발적 증가 추세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탈북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 문학에 대한 논의도 보다 풍성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김유경의 작품에서 탈북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모성성, 사랑, 죽음 등 인간의 근원적 존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작가가 발표한 두 편의 작품에서는 모두 모성 인식이 매우 핵심적인 감정의 계기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죽음과 모성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김유경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성 주체들은 특수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양한 방향의 모성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사랑, 죽음, 거주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청춘연가』에서는 선화, 복녀, 경옥 등 세 여성의 모성 인식이 작품 전반의 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주인공 선화의 모성 인식과 정체성 형성이 맺는 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모독소』에서도 극단적 상황에 놓인 모성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모성 인식과 아이의 탄생 및 죽음, 사랑이라는 요소들에 대해 작가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한다.

탈북자 혹은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자라는 특수한 정체성이 죽음과 모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탈북 디아스포라로 지칭할 수 있는 우리 사회만의 분단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성 주체의 모성 인식을 중심으로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김유경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랑과 죽음의 문제가 형상화되고 있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김유경, 탈북, 탈북 작가, 청춘연가, 인간모독소, 모성애, 죽음

목차

1. 서론
2. 부정하고 싶은 모성애와 자기애의 관계성 - 『청춘연가』
3. 아이를 통한 결속과 상실 이후의 재생 - 『인간모독소』
4. 가족 해체와 탈북 디아스포라
5. 결론

1. 서론

본고는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의 모성 인식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유경은 2000년대 이후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 작가들 중 가장 주목받는 소설가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활동을 시작한 2010년대 이후 한국문단에서 탈북 문학의 개념은 점차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 작가들의 탈북 및 탈북자 주제 작품들의 지속적인 창작과 함께, 탈북자 출신 작가들의 직접적인 창작 활동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김유경은 2012년 첫 장편소설 『청춘연가』를 발표한 데 이어, 2016년에 두 번째 장편 『인간모독소』를 출판하며 장편소설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탈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추세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 출신 작가들의 작품 발표 또한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은 탈북 문학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논의도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탈북 문학의 양상과 의미를 규명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여러 각도에서 대두되었다. 탈북 문학의 개념과 전개 양상을 분석한 박덕규의 연구를 비롯해서¹⁾, 한국 문단의 작가들이 탈북자 문제의 형상화에 주목하고 있는 지점을 탐색함으로써 탈북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²⁾ 이와 더불어 기존 한국 문단의 작가들과 2000년대 이후 등장한 탈북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탈북 작가들의 창작 결과물에 대해 의미 부여도 시도되고 있다.³⁾ 현 시점에서 탈북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탈북자의 인권

-
- 1)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14-3,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89-113면.
- 2)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바리테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215-245면.
 김효석,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콘텐츠연구』 제2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126-152면.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261-288면.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탈북'을 통한 지향점과 '탈북자'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35-86면.
 양진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상상력-2000년대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4, 우리말글학회, 2015, 349-373면.
 최병우, 「탈북이주민에 관한 소설적 대응 양상」,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23-353면.
- 3)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5, 한중인문학회, 2012, 291-310면.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탈북 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21면.
 서세림,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69-102면.
 정하늬, 「탈북 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인문학』 6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33-64면.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장해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 517-542면.

문제에 대한 천착을 바탕으로, 여성, 수용소, 새로운 이주 사회에서의 적응, 탈북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변이 등 다양한 주제의식과 연관되어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인권 문제의 보편성과 분단 현실의 특수성이 맞물려 있는 탈북 현안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기존 한국 작가들의 소설에 등장한 탈북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이 한국사회 비판과 연관되는 양상이 관심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탈북자 출신 작가로 꼽을 수 있는 김유경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단의 또 다른 한 흐름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받지는 못하였지만 탈북자 출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탈북 문학의 주요한 한 범주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상,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 작가들의 소설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에서의 억눌리고 궁핍한 삶과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 등이 주로 이야기되어온 측면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그 이상의 주제 의식을 깊이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탈북 작가들의 빈약한 주제의식이라는 측면은 대개 비판의 대상으로서만 다루어졌으며, 보다 진진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물론 탈북 작가들의 작품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그러한 인식이 강화된 측면이 있겠으나, 김유경의 소설에서 기존의 관점을 넘어 보다 심화된 주제 의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설을 통해 탈북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적 주체의 고민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김유경의 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작가가 발표한 두 편의 작품에서는 모두 모성 인식이 매우 핵심적인 감정의 계기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죽음과 모성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탈북자 혹은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자라는 특수한 정체성이 죽음과 모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탈북 디아스포라로

지칭할 수 있는 한국 사회만의 분단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여성적 주체의 모성 인식을 중심으로 김유경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랑과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2. 부정하고 싶은 모성애와 자기애의 관계성 - 『청춘연가』

김유경의 데뷔작인 『청춘연가』는 기존의 탈북자 출신 작가들의 문학적 성취에 비해 상당히 수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청춘연가』 자체에 대한 작품론도 비교적 여러 편이 생산되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 작품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⁴⁾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 작품이 ‘탈북 디아스포라’로서의 존재들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한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김효석은 『청춘연가』 분석을 통해 탈북자 의식의 본격적 서사화에 주목하며 기존의 증언 서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을 논하였다.⁵⁾ 북한을 탈주해 중국으로, 혹은 동남아로, 그리고 또 다시 한국으로 이동하는 탈북자들의 존재성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 고찰하면서, 그것을 탈북자들의 정체성과 탈북 문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도 기존 연구의 중요한 경향이었다. 그와 같은 연구 방향에서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 주체의

4)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305-332면.

서세립,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1-104면.

백지윤, 「탈북작가의 '몸' 형상화와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김유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문예비평연구』 5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125-147면.

5) 김효석, 앞의 글, 327면.

모성 인식이 탈북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맞물리며 독특한 주제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김유경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성 주제들이 매우 특수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양한 방향의 모성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사랑, 죽음, 거주 등과도 떼어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데뷔작인 『청춘연가』에서는 이러한 모성 인식이 작품 전반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점에서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청춘연가』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요 여성 인물들은 모두 아이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선, 이 작품의 주인공 ‘정선화’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탈북의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인물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본래 중학교 수학 교사로서, 대학교수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 밑에서 행복한 엘리트 가정의 삶을 살아가던 그녀는, 배급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병으로 죽고 어머니도 앓아눕게 되면서 교사 일을 더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보려던 것도 실패한 후 끝내 중국 인신매매단에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 중국인 남편과 그의 형에게 6년간이나 혹독한 성적 학대를 당하며 가족들에게 멸시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그녀는 ‘메이밍’이라는 이름의 딸을 낳게 된다. 딸의 출산 이후 선화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자 하던 중국인 남편을 벗어나 그녀는 딸을 떼어놓고 혼자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아침 식사 전에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며 선화는 깊은 숨을 토해냈다. 오늘은 중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로 걱정했다. 그녀가 치를 떨고 떠났 으면서도 남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두고 온 다섯 살 난 딸 때문이다. 그녀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그토록 버리고 싶

은 과거와 연결된 굵은 줄의 정체는 바로 딸이다.

남편을 닮아 눈이 가늘고 입이 비죽이 나온 딸의 얼굴이 언뜻 눈앞을 스치자 망치로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갑갑해온다. 그것은 그리움도 모정도 아니다. 그저 없어지지 않는 이상한 통증이다. 한국말은 한 마디도 할 줄 모르는 딸, 그녀가 그 지옥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던 원수 같은 딸이다.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과거의 생생한 증거물이자 시시각각 지나온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딸이다. 축복도 행복도 아닌, 바라지 않던 존재이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을 허비는 딸이다.

딸에 대한 미움으로 가슴은 멍이 든 것처럼 늘 아팠다. 그러면서도 “마마” 하며 선화를 따라다닐 땐 어쩔 수 없이 안아주고 볼에 입을 맞추어주었다. 모성애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게 아닌가 보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느릿느릿 전화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다시 그들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못 견디게 화가 났다.⁶⁾

인신매매와 그에 따른 강제 결혼, 시어머니와 남편 등 가족들의 괴롭힘과 협박, 그로 인한 비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선화는 시종일관 탈출을 꿈꿀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시도와 실패 끝에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러한 탈출 과정에서 어린 딸은 함께할 수 없었다. 딸을 데리고 탈출하는 것은 극심한 감시 상황 속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며, 원치 않는 고통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딸을 버리고 나가야 한다는 선택지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딸과 분리되어 탈출에 성공하고 한국에 입국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후, 다섯 살 어린 딸의 존재는 선화의 삶에서 복잡한 애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화는 한국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아래 언제나 깊숙이 자리 잡은 딸 메이밍의 흔적을 지울 수 없어 괴로워한다. 앞의 인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녀가 그 지옥에서 도망치

6)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10-11면.

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던 원수 같은 딸'은 '과거의 생생한 증거물이자 시시각각 지나온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떼어 놓고 탈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중국의 딸이 있는 이상 선화의 삶에서 언제나 과거의 흔적은 본질적으로 분리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화라는 인물에게 모성애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딸 메이밍의 존재는 그녀의 과거의 삶을 한층 더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이끌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우선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모성 인식의 근원이 그녀의 삶에는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선화의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기억 속에서 딸의 존재는 항상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중국인 남편에 대한 혐오와 자신의 믿기 힘든 불행한 운명에 대한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딸의 존재와 겹쳐지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기 힘들 때 모성애와 자기애가 상충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성애와 자기애의 특수한 관계성은, 이 작품 전반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추동력 중의 하나가 된다. 중국인 남편의 피를 이어 받은, 학대와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결과물로서 태어난 아이인 자신의 딸 '메이밍'이 존재하는 한 선화는 자신의 얼룩진 과거와 자기혐오를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선화의 한국에서의 삶은 새로운 자신의 길을 찾는 과정과 함께 끊임없이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과 딸에 대한 애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국에서 방송국에 취직하며 운 좋게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면서도,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이 등장하는 악몽에 시달리며 죄책감과 그리움과 원망을 동시에 어린 아이에게 품을 수밖에 없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말미에 이르면 선화가 불치의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을 한 번 만나기 위하

여 그토록 증오하던 중국인 남편과 다시 연락하고 마주서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새로운 삶의 시작과 꿈이 꺾일 수밖에 없는 가혹한 죽음의 순간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딸과의 재회였다. 점에서, 딸은 그녀에게 애증의 대상이면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움의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 상황과 거리가 있는 고통의 삶 속에서 선화의 모성애는 자기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결국 죽음으로 인해 삶이 스러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모성애의 재소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탈북 여성의 신산한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모성애에 대하여, 죽음이 다시 그것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이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피할 것이 없을 때, 선화는 다시 자신의 아이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윤은 모성의 모순적 측면, 즉 선량함과 파괴성의 공존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성의 원형적 형상의 모순성에 대해 인식하고, 모성 내면의 어두운 측면, 즉 그림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그림자를 겪는 의식적 고통은 대립들의 충돌 과정에서 어떠한 갱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죽음은 어떤 이행, 즉 변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⁷⁾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결혼과 원하지 않았던 출산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선화의 그림자가 필연적으로 겪어내야 없었던 의식적 고통의 영역은 일반적인 모성 담론의 현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움의 과정과 애초에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모든 원인으로 늘 탈북 디아스포라로서의 존재 인식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탈북 작가의 작품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이 된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화의 죽음이라는 변환의 지점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처럼 보

7) 지빌레 비르크호이저-웨어, 『민담의 모성상』, 이유경 역, 분석심리학연구소, 2012, 25-75면.

이다. 선화의 그림자가 겪은 고통의 봉합을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여성 주체 중 하나인 ‘복녀’는 유사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선택과 인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복녀도 선화처럼 임신매매에 의해 중국 남편에게 팔려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탈출해 왔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의미이자 목표가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다.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속적인 자기혐오의 요인으로 기능하며 괴로워하는 선화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그녀가 선화와 다른 방향성을 보이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인 남편’과 ‘자신의 아이’를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이가 중국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복녀는 의식적으로 남편은 자신의 삶과 무관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오로지 자신과 아이만의 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강력한 모성애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던 것이다. 농담처럼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복녀는, 선화가 할 수 없었던 남편과 아이의 분리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선화, 복녀와 하나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탈북 여성 ‘경옥’은 일찌감치 자본의 필요성에 눈을 뜬 인물이다. 그녀는 “언니, 난 정말 바보예요. 왜 이 아이를 지울 생각을 못 했을까요?”⁸⁾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경옥 역시 중국에서 임신매매에 붙들려 노래방에서 일하다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게 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뱃속의 아이는 그러한 경옥에게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것이며, 물리학 신체 변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경옥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함께 한다는 삶을 단 한 번도 꿈꾸어 본 적도 없으며, 아이를 출산한다는

8) 위의 책, 31면.

행위 자체도 귀찮은 것을 ‘떼어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로 아무렇지 않게 떠나보내는 그녀가 문제적인 것은, 그러한 자신의 관점을 한 번도 숨기지 않는 존재, 즉 모성을 전혀 담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경옥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옥은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제나 당당하고 그 자체에 대한 죄책감은 결코 느끼지 않는 인물이다. 이와 같이 선화, 복녀, 경옥이라는 세 명의 탈북 여성 주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선택과 모성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바, 그녀들의 인식은 사실상 이 작품 전반의 긴장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어머니에 대한 이상화는 모성의 현대적 구성에서 한 축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낭만적 사랑이 전파한 가치들 속에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갔다.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활동과 감성에서 ‘두 개의 性’이라는 모델을 강화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⁹⁾ 따라서 마땅히 느껴야만 하는 ‘어머니로서의 감정’은 현대사회에서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선화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내외의 다양한 상황의 여성들이 기존의 고정적 관념과는 다른 모성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모성 인식을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그녀들의 삶과 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놀라워하지 않았고 죽음 곁에서 살았다. 삶과 죽음의 가느다란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악을 썼다. 처음엔 가정을 살리기 위

9)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황정미·배은경 역, 새물결, 2003, 82면.

해 악을 썼지만, 누구든 굶어 죽기 시작하면 그 가족에도 빛을 바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쓸모없는 물건처럼 훌훌 길바닥에 버린 어머니들이 부지기수였다. 더는 먹여 살릴 수 없으니, 버리면 주워 먹거나 빌어먹어서라도 혹시 목숨을 부지할지도 모른다는 변명으로 스스로를 속였다. 그렇게 어머니들은 어미이기를 그만두었다.¹⁰⁾

그녀들의 삶은 기본적 모성 인식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죽음과 모성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연관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된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포기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는 모성 인식은, 결국 『청춘연가』 안에서 선화, 복녀, 경옥이라는 세 부류의 형태로 분리되며 기존의 관념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간 것이다.

3. 아이를 통한 결속과 상실 이후의 재생 - 『인간모독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관점들과 다른 방향에서 모성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김유경의 『청춘연가』와 『인간모독소』 두 작품 모두 자신의 아이를 만나면서 끝을 맺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인간의 삶에서 아이와의 만남, 그리고 그 조우를 통해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기본적인 주제 의식은 두 편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그러한 주제 의식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에서 탈북자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이 매우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 바, 특히 그러한 시련의 정점에 놓이는 것은 바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현실적 문제이다.

『인간모독소』에서는 평양에 사는 신혼부부 ‘이수련’과 ‘한원호’의 평범

10) 김유경, 앞의 책, 27-28면.

하고 행복했던 일상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루어진다. 그들은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다만 원호의 집안 쪽 문제리는 점만 어렵짐작할 수 있을 뿐, 실제적인 사유조차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이혼’을 통해 가정을 해체한다면 부인인 수련만은 내보내 줄 수 있다는 제안이 다가온다.

그러나 수련은 그러한 보위부원들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 원호에 대한 ‘사랑’ 때문이며, 그러한 선택에는 조금도 고민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지금까지의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자신의 안위보다 가족과 사랑을 선택하는 수련의 모습에 대해 작품은 별다른 설명 없이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혼만 한다면 수련은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남편과 함께 하는 삶, 즉 사랑 때문에 수용소의 수인이 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점차 새로운 위기의 단초가 되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랑으로 결속된 관계라 믿었던 부부의 사이에 권력 구조가 개입하면서 균열이 발생하고, 그러한 균열의 과정에서 ‘아이’를 통한 새로운 결속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호와 수련이 수용소에서 맞닥뜨리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함께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 내의 보위원 ‘민규’의 존재이다. 민규는 수용소에 복무하기 전 평양에서 수련을 남몰래 연모해오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뜻밖의 장소에서 첫사랑과 재회한 민규의 모습은 이 작품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

수련에 대한 민규의 사랑은 결국 ‘열정’에 사로잡힌 자의 한 피폐한 전형형을 보여준다. 이것이 사회적 통제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설명하는 니클라스 루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이 사회로부터 일종의 질병으로 용납되며 특수한 역할을 할당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설명한다.¹¹⁾ 남편이 있는 수련의 삶에 강압적으로 끼어드는 민규의 존재를, 열정으로

형상화하며 그녀의 모든 편의를 돌보아주는 헌신적인 면모 위주로 묘사하는 것은 그러한 일탈의 또 다른 측면을 해명하는 셈이다. 즉, 민규는 타자와의 감정적 연루가 너무나 강렬한 상태일 때, 자신의 통상적 책무를 무시하거나 종교적인 것에 가까울 만큼의 진지한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매혹의 상태로서의 열정적 사랑을¹²⁾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제시된 것이다. 이제 그의 관심사는 더 이상 출세나 중앙당 진출 등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조차 흐릿해진 상태에서, 민규의 관심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수련에 강력히 묶여 있다. 민규 자신은 보위부원이고 수련은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력구조에 기인한 관계성은 그 자신에게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관심사보다 수련의 존재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형된 권력 구조의 모습에 대한 형상화는 사회적 질서와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매우 엄격하고 고립적인 북한 체제와 정치범 수용소의 시스템에서 보았을 때 극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열정과 감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이 관계는 열정과 권력 혹은 감정과 탐욕이 뒤섞인 모호함으로 점철되어 있다. 애초에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했던 수련의 의사에 철저히 반하는, 민규 자신의 감정만으로 추동되는 강압적 관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보위원과 수감자라는 철저한 지배와 복종 관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양상은 점차 전복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현실과 그 괴리감을 드러내는, 희생에 가까운 극단적 선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작품에서 두 사람의 그러한 관계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결국 그 사이에 수련의 모성 인식과 아이의 존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큰

11) 니콜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새물결, 2009, 46면.

12)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76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열정이라는 명목으로 결속되는 관계가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즉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가능성에 비해서, ‘아이’가 지니는 함의는 매우 단단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른 모든 관계들이 변화 및 철회 가능한 것이 되어갈수록 아이는 더욱 더 영원성의 상징으로서 인간적 삶에 맞을 제공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¹³⁾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보자꾸나.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노라면 이 골짜기에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니.”

“아무렴요. 우리 애까지 이 골짜기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¹⁴⁾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가 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애를 생각해서라도’ 버티고 견디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수련과 시어머니에게 가족으로서의 강한 결속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동시에, 남편 원호가 이 가족적 단란함의 현실에서 탈각되어 버리는 데에도 그러한 아이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아내 수련과 보위원 민규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원호는,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태어난 아이 ‘선풍’이 민규의 아이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더욱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와 결속을 맺기 시작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이유는 그 관계가 다른 성인과의 관계와 매우 다르다는 점에 있다. 아이는 나와 선천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의한 결속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지속성을 지니며, 끊어버릴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철저한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 주고받는 관계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그러한 계산적 속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와의 관계는 그 어떤 다른 관계들보다

13) 율리히 벡,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 새물결, 2006, 138면.

14) 김유경, 『인간모독소』, 카멜복스, 2016, 132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이는 적어도 그가 아직 어린 동안만큼은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버림받을 위험 없이 모든 사랑과 헌신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¹⁵⁾ 선풍이 자신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던 원호가, 사실 선풍은 자신의 아들이 맞으며 그동안 자신이 오해로 외면해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 아이에 대한 태도가 급변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 뿌리내림 혹은 의미로 가득한 삶에 대한 희망과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아이와의 긴밀한 관계에 기반을 둔 행복에의 욕구와도 연관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¹⁶⁾ 특히 이 작품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갖고 돌보며 부양하는 일이 삶에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개인의 사적 존재의 핵심적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다른 목표들이 뿌리내릴 수 없는 지점에서 아이는 단단한 발판을 통해 가정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녀는 캄캄한 어둠 속을 망연히 둘러본다. 절망과 외로움이 어둠처럼 그녀를 뻑뻑이 둘러싼다. 어디론가 도망치고만 싶다. 그러나 그녀가 숨을 곳, 달아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죽으나 사나 반토굴 안에서 모든 것을 견뎌야만 한다. 그녀는 녹녹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다가 얼른 엉덩이를 들며 두 손으로 배를 그러안는다. 뱃속 어디엔가 새 생명이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득해진다.

‘그래, 나에게는 이 애가 있어. 너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아.’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주억거린다.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남편을 닮은 구석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남편의 버림을 받는다 해도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간다면 견

15) 올리히 벡, 앞의 책, 144면.

16) 위의 책, 189-190면.

딜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만 이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최 대위가 아니라 악마의 도움이라도 받을 것이다.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등잔불이 깜빡이는 반토굴을 향해 돌진하듯 단호히 걸음을 옮긴다. 그녀는 이미 새끼를 품은 어미다.¹⁷⁾

남편 원호의 숨 막히는 외면과 냉대는 수련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은 오로지 아이의 존재인 것이다. ‘새끼를 품은 어미’라는 인식이 수련이라는 인물을 더욱 강인하게 만든다는 것은, 앞선 『청춘연가』의 선화와는 반대의 양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인신매매의 결과물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여겼던 선화가 끝내 그 아이를 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면, 사랑으로 결합된 가족 내에서 아이를 갖게 된 수련은 끝까지 아이의 존재가 가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재 사건에 휘말려 아들 선풍이 죽게 되면서 수련과 원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만다.

원호는 선풍을 사랑하면서 비로소 무덤 같은 고독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옛누룽지를 품에 감추고 퇴근할 때마다 아이가 맛나게 먹는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다. 선풍이 때문에 기어코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 비굴하게 이어 온 목숨에 대한 위안이 되었다. 아들에 대한 절절한 감정은 빈껍데기만 남은 그의 몸에 서서히 채워지는 피 같은 것이었다. 이제 아이와 함께 원호의 마음속에 찼던 그 생기도 함께 묻힐 것이다.¹⁸⁾

17) 김유경, 앞의 책, 147-148면.

18) 위의 책, 249면.

이렇듯 아들 선풍의 죽음으로 인해 원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용소의 삶에서 유일하게 본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아이라는 존재의 희망이 죽음을 통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아이를 지킬 수 없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린 이후의 절망감이 함께 몰아닥치는 상황에서, 원호의 마음에 남는 것은 원망과 분노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선풍의 죽음을 통해 수련의 삶 역시 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남편 원호의 냉대 속에서도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선풍의 존재 덕분이었던 것으로, 아이가 없는 현실에서 명목만 남은 부부관계도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침내 남편과의 부부 관계와 모든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수용소를 탈출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도 선풍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다. 강렬한 모성애를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수용소의 삶이었으나, 모성 인식의 대상인 아이를 잃고 말았을 때 그러한 의지를 전부 상실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아들 선풍의 죽음 이후 처음에 수련이 자살을 시도하려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 것도 꿈꿀 수 없는 삶, 더 이상 그 어떤 작은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삶에서 남은 것은 사실상 죽음뿐인 것이다. 민규에 의해 자살 시도가 실패하면서 수용소 탈출을 통해 그러한 ‘희망 없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침내 수 년 간의 고통 끝에 수련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아이의 존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탈출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그녀의 삶의 의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홀로 탈출한 수련은 자신을 뒤따라 올 민규를 한동안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아이가 원호가 아닌 민규의 아이라는 점에서, 수용소 탈출과 함께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음을, 그리고 탈출과 새로운 가족의 구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전의 삶과 온전한 작별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의 아이의 존재는 여러 모로 주인공들의 삶에 중요한 계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이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 수용소의 삶에서의 의미와 절망을 얻게 된다는 점이 일차적인 계기라면, 탈출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결국 또 다시 아이의 존재가 그들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다.

탈북 이후 세 사람은 모두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원호와 민규가 다시 마주치게 되면서 특히 원호는 민규에 대해 살인을 꿈꿀 정도로 깊은 원망과 증오를 숨기지 않는다. 또한 동시에 자신을 배신한 수련에 대한 미움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만나면 민규를 반드시 죽이리라 결심했던 원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수련이 민규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 선풍은 죽었으나, 다시 태어난 아이가 풍선을 들고 자신의 앞으로 뛰어올 때 원호는 결국 새로운 아이가 하늘에 띄운 풍선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아이는 증오와 죽음을 넘어 또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사람의 삶과 관계는 아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재규정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4. 가족 해체와 탈북 디아스포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유경의 작품들에서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가족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결속 관계에 대하여 작가는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데, 중요한 두 개의 축은 언제나 ‘부부’와 ‘아이’라는 지점이다.

사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가족은 외부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매우 안정

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가족은 개인적인 부분에 맞추어 구조화되어 있고, 주변 세계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된다. 이처럼 가족의 결집력은 오늘날처럼 개인화된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¹⁹⁾ 특히 문제적인 것은 국가 및 제도라는 시스템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이라는 사적인 네트워크는 점점 더 그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혈연이라는 강력한 그물망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외부의 모든 불확실한 관계성보다도 여전히 가족은 강한 매력을 지니는 존재로 기능한다. 어딘가에 뿌리내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지속적으로 품게 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탈북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이들의 존재는, 그러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가족 구조에 대한 평범한 믿음에 대해 또 다른 의미에서 질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에서 ‘아이’의 존재를 중심으로 어떻게 묶여나갈 것인가를 김유경의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 가족만이 줄 수 있는 배타적 안전과 사랑이라는 것과 함께 고통과 의무도 함께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이며, 탈북 여성들의 삶에서 그러한 어려움은 유독 더 크게 자리할 수밖에 없다.

위기의 순간 엄청난 역할과 책임을 ‘강하지만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존재의 모성에 전가하며 희생의 화신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이, 욕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사실이다.²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딸을 두고 자신의 삶을 찾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의 선택 과정은 탈북 여성의 엄혹한 삶의 조건이 초래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 주체적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탈북과 한국 입국 등의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위기를 지나 다시 안정적 현실을 마주하

19) 크리스티안 슈트, 『낭만적이고 전략적인 사랑의 코드』, 장혜경 역, 푸른숲, 2008, 211-212면.

20)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390-391면.

게 되면 그러한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정당화와 함께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죄책감의 영역이 결합되면서 탈북 디아스포라 여성만의 독특한 모성 인식의 한 단면을 구현하는 것이다.

탈북 여성의 삶에서 그러한 고통이 상당히 크고 심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 문학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서 그러한 고통의 측면에 주로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유경의 작품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고통의 영역, 즉 사랑과 가족과 삶의 해체의 요소에서 나아가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점, 즉 '재구성'의 영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참 울고 나서야 선화는 딸의 팔을 잡고 마주 보았다. 뜻밖에도 선화는 그 애의 약간 도톰하고 반듯한 이마며 맑은 살결이 자기를 닮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메이밍의 흘러내린 어깨며 곧고 긴 목이 신동히 자기와 같다는 것도 발견했다. 선화는 다시금 입을 실룩거리며 딸쪽 질을 하듯 흐느낌을 삼켰다. 무슨 말인가 해야겠는데 목구멍에 뜨거운 솜뭉치가 콧 틀어막힌 것처럼 숨이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화는 다시 딸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또다시 온몸에 이상한 전율이 흘렀다. 금방 난 딸에게 젖을 물리던 때가 떠올랐다. 행복해야 할 출산이 고통과 불행이라는 설움에 울고, 바라지 않던 아이를 낳게 된 것이 기막혀 울면서 첫젖을 물렸다. 아기는 눈을 뜨지 않고도 냄새로, 입 더듬으로 선화의 젖꼭지를 얼른 찾아냈다. 그리고 입을 한껏 벌리고 부드러운 입술로 큼직한 젖꼭지를 걸탐스럽게 당겨 입 안에 넣었다. 그 순간 젖꼭지를 문 아기의 입을 통해 느껴지는 아기의 따뜻한 체온, 이어 입을 오물거리며 젖을 빠는 아기, 아기는 아직 보지 못하는 눈을 빠끔히 뜨고 엄마를 쳐다보듯이 올려다보았다. 그때 짜릿하게 온몸에 퍼지던 그 감각이 선명히 되살아난다. 선화는 더 힘을 주어 딸을 꼭 끌어안았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그녀는 굳어진 듯 딸을 안고 있었다.²¹⁾

『청춘연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화는 마침내 중국에 가서 자신의 딸 메이밍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재회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메이밍이 자신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이의 탄생부터 지속적으로 부정해 왔던 사랑의 감각을 비로소 처음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장면인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죽음에 가까워진 순간에 아이의 생명력을 환기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성을 마주하게 되는 선화의 모습은 딸을 힘껏 끌어안는 감각적인 장면 묘사와 함께 결국 자기애와 모성애가 혐오의 관계로 묶이는 것만은 아니었음을,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삶에서 그 두 방향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그러한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변곡점의 존재는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죽음이 유도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선화가 메이밍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으로 묶이지 않은 다른 관계들에서의 사랑, 이를테면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은 지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더 강력한 힘이 가족의 구조에서는 작동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도 아이가 탄생하고 그 아이로 인해 하나의 세계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모되기’의 지속성과 그러한 관계 구조의 유지에 대한 의지라 할 수 있다. 깨어질 수도 있는 결혼이라는 가족 구조 속에서 부모되기의 범주가 점점 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 현대사회 가족 구조의 현실이라고 할 때, 이것이 정치범 수용소라는 극단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장편 『인간모독소』에

21)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305면.

서는 지속적으로 상기된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에서도 아이의 죽음이라는 강력한 변환 지점의 존재가 그러한 부모되기를 통한 관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탈북 문학의 한 중심에 자리한 김유경의 소설 작품들은 그러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가족과 모성 인식 등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의 탈북 디아스포라 여성 주체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한국 문단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충분히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 내부의 정치적 문제와 고발 의식 등 기존의 탈북 문학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주제들의 반복적 논의를 넘어서, 보다 근원적인 지점에서의 탈북 문학의 의미를 되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탈북 작가 김유경의 소설에 나타난 모성 인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김유경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탈북 작가들 중 가장 주목받는 소설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특히 본고에서는 탈북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모성, 사랑, 죽음 등 인간의 근원적 존재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김유경 소설에서 여성 주체의 모성 인식은 가장 핵심적인 감정적 계기로 기능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성장과 갈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서사의 흐름에서 모성과 관련한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유경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성 주체들은 매우 특수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양한 방향의 모성 인식을 보여준다.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사랑, 죽음, 거주 등과도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데뷔작인 『청춘연가』에서는 이러한 모성 인식이 작품

전반의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청춘연가』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요 여성 인물들은 모두 아이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인공 ‘선화’의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기억 속에서 딸의 존재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모성애와 자기애가 상충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복녀’는 유사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선택과 인식을 드러낸다. 그녀는 끝까지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의미이자 목표가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경옥’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함께 한다는 삶을 단 한 번도 꿈꾸어 본 적도 없으며, 모성과 자신의 삶이 아무런 연관관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즉 모성의 소거를 보여준다.

『인간모독소』에서도 극단적 현실에서의 모성 인식이라는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로서 모성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탈북 과정의 고통 등과 맞물리면서 탈북 문학에서만 형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지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수용소 내에서도 아이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가족의 중요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수용소의 벌거벗은 삶에서 아이의 존재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아이를 잃고 난 후의 가족과 사랑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작품은 지속적으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나아가 탈북자 혹은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자라는 특수한 정체성이 죽음과 모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탈북 디아스포라로 지칭할 수 있는 우리 사회만의 분단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성적 주체의 모성 인식을 중심으로 김유경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랑과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김유경, 『인간모독소』, 카멜복스, 2016.

2. 논문

-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215-245면.
-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5, 한중인문학회, 2012, 291-310면.
-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탈북」을 통한 지향점과 ‘탈북자’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35-86면.
- 김효석,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126-152면.
-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305-332면.
-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14-3,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89-113면.
- 백지윤, 「탈북작가의 ‘몸’ 형상화와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김유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125-147면.
- 서세림,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1-104면.
- 서세림,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69-102면.
- 양진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상상력-2000년대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4, 우리말글학회, 2015, 349-373면.
-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261-288면.
-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탈북 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21면.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장해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 517-542면.
정하늬, 「탈북 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인문학』 6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33-64면.
최병우, 「탈북이주민에 관한 소설적 대응 양상」,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23-353면.

3. 단행본

방민호 외, 『탈북 문학의 도전과 실험』, 역락, 2019.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2000.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새물결, 2009.
울리히 벡,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 새물결, 2006.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황정미·배은경 역, 새물결, 2003.
지빌레 비르크호이지-웨리, 『민담의 모성상』, 이유경 역, 분석심리학연구소, 2012.
크리스티안 숄트, 『낭만적이고 전략적인 사랑의 코드』, 장혜경 역, 푸른숲, 2008.

<Abstract>

Awareness of Motherhood in Kim Yu-gyeong's Novel, a North Korean Defector-novelist

Seo, Serim

In this article, we discussed the perception of maternal love in the novel of Kim Yu-gyeong, a North Korean defector. Kim Yu-gyeong is the most outstanding writer of North Korean defector-turned-writers who began to emerge anew since the 2000s. She published her first full-length novel, *Love Song of the Young*, in 2012, and published her second full-length novel in 2016, continuing her career centered on full-length novel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increased a lot since the mid-to late 1990s when the country was on a march of hardship. Since the 2000s, the number of presentations of works by North Korean defectors has increased little by little, and the concept of North Korean defector literature has been discussed in earnest. Accordingly, there should be more discussions on the literatur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article focused on Kim Yu-gyeong's work, which reveals both her identity as a North Korean defector and her concerns. Motherhood is important, especially in both of her two works. In this process, the fundamental problem of human death and motherhood is closely related. The impact of the special ident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or inmates in political prison camps on the perception of death and maternal love is deeply related to the division of our society, which can be referred to as the North Korean defector diaspora. A Study on Kim Yu-gyeong's Novel

Based on the Perception of Maternal Love by the Female. At the same time, we looked at how the most fundamental issue of love and death is being shaped in the life of diaspora, a North Korean defector who crosses the border.

Key words: Kim Yu-gyeong, North Korean defector-novelist, *Love Song of the Young*, *Element of Human Degeneration*, Motherhood, Death

투 고 일: 2021년 5월 30일

심 사 일: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1년 6월 22일